



USDA, 미국 옥수수·대두 작황 등급 하향

(USDA lowers condition ratings for corn and soybeans)

미국 농무부(USDA)는 월요일 주간 보고서에서 미국 옥수수와 대두의 작황 등급을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USDA에 따르면 일요일 기준 미국 옥수수의 '양호(Good)~매우 양호(Excellent)' 등급 비율은 57%로 전주의 60%에서 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로이터가 조사한 시장 전문가들의 평균 예상치인 1%포인트 하락보다 큰 폭이다.

EU 작황 모니터링 기관, 고온·건조한 날씨로 옥수수 단수 전망 추가 하향

(EU crop monitor cuts maize yield forecast again on hot, dry summer)

EU 작황 모니터링 기관 MARS는 월요일, 고온과 가뭄이 지속적으로 옥수수 작황에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유럽연합(EU)의 곡물용 옥수수 단수 전망치를 2개월 연속 하향 조정했다. MARS는 올해 EU 옥수수 평균 단수를 헥타르당 6.61톤으로 전망했다. 이는 7월 전망치인 6.93톤과 6월 전망치인 7.38톤에서 연이어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러시아 밀 수출가격 하락, 수출량 16년 만에 최저 수준 전망

(Russian wheat export prices fall as shipments expected to reach 16-year low)

러시아산 밀 수출가격은 지난주 하락했지만, 우크라이나와의 분쟁 격화로 남부 항만의 선적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어서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수출가격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남부 항만을 대신해 상당량의 수출 물량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발트해 지역의 밀 수출가격은 노보로시스크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지난주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우크라이나 주요 곡물 수출, 전주 대비 11.4% 감소

(Ukraine's exports of key grains fall 11.4% in week ending Aug 19, consultancy says)

농업 컨설팅업체 APK-Inform은 월요일, 흑해 항만 봉쇄의 영향으로 8월 13~19일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량이 18만 8,200톤으로 전주 대비 11.4% 감소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거점인 오테사 지역 항만은 최근 군사적 긴장 고조로 터미널과 선박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7월 말부터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출처: Thomson Reuters